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18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공포의 '강수비', 눈 감은 폭력

최경재 MBC 뉴스 기자

인천광역시역도연맹

인천광역시역도연맹 임원, 학생 성추행 무마 의혹

오홍석 여성동아 기자

스포츠인종차별

손흥민 향한 인종차별, 올 시즌에만 3번째... "또? 소름이 끼친다" 인권단체 폭발

고성환 OSEN 기자

스포츠계 저출산, 엄마선수가 없다

딸 낳고 MVP까지 딴 농구전설...평창銀 김보름이 궁금했던 것

김효경, 박린 중앙일보 기자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달린다

스포츠윤리센터, 2023 서울하프마라톤 참가

김선근 한국생활체육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공포의 '깜수비', 눈 감은 폭력

앵커

한 초등학교 배구팀 코치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훈련 도중에 넘어진 학생을 향해 공을 세게 내려치고, 발로 차는 모습 등이 CCTV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코치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일, 한 초등학교 체육관. 코치가 훈련 도중 넘어진 선수를 향해 공을 세게 내려칩니다. 이번엔 벽에 기대 아이를 향해 실 새 없이 스파이크를 반복합니다. 넘어진 아이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이 배구팀은 이걸 '깜수비'라고 부릅니다.

[김성철/00초 배구팀 학부모]

"한 선수당 10분씩도 했대요. 얼굴 맞을 때도 있고 배를 맞으면 숨을 못 쉴 때도 있고..."

배구팀 선수였던 서준(가명)이는 지난 3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의심 증상과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배구의 꿈을 접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서준이는 훈련 과정을 처음 털어냈고 의사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서준이(가명)/00초 배구팀 선수]

"훈련할 때 공 못 받으면 XX이냐 미친X이냐. 훈련받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코치님이 배구부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말라고..."

학대 피해를 겪었다는 학생은 모두 3명입니다.

코치는 지난달 직위해제됐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코치는 재작년에도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다른 선수 부모들은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탄원서도 재판부에 내며 코치를 두둔했습니다.

[전 00초 배구팀 선수 부모 (학부모 간 통화)]

"엄마들도 입을 맞췄고, 엄마들 다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거야... 00는 아들 엉덩이에 자국이 나왔어.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자기 자식 잘되라고..."

똑같은 피해가 반복된 데 대해 학교는 "하루 종일 CCTV를 봐야 하냐" "피해 아동 부모는 왜 몰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용철/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처장]

"그때 정확하게 잘못된 것들을 끊어냈다면 그다음에 벌어질 피해자들은 생기지 않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코치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녀들이 운동도 좋아하고, 코치도 좋아한다면서 폭력에 눈감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자료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1245_36199.html

인천광역시역도연맹 임원, 학생 심추행 무마 의혹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역도부 코치이자 인천광역시역도연맹 임원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역도연맹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학생들은 연맹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해당 코치와 연맹 내부 인사들의 친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에 따르면 A코치는 자세를 바로 잡아준다는 명목으로 여학생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배드민턴 라켓으로 쓰다듬으며 여러 차례 “다리 벌려”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라켓으로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양 손에 바벨을 들고 있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만지기도 했다.

결국 한 학생이 학교장에게 A 코치의 신체접촉에 대해 불쾌함을 호소했고, A 코치는 구두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도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후에도 A 코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에게 “넌 뱃살 많은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여자가 뱃살 많으면 좋겠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코치는 학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자율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소극적으로 훈련을 지도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측은 “사실상 학생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A코치의 소극적인 지도에 학생 측은 2022년 4월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해당 사안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회부됐으나 교육청은 학교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교육청에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경위를 묻자 “성 비위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한 조사 과정은 당사자에게만 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학생 측은 교육청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교육청은 역도부 학생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좁은 업계 특성 상 학생들이 코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터치 없이도 충분히 지도 가능”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년 가까이 청소년 역도 선수들을 지도해온 한 지도자는 “A 코치 같은 훈련법은 아주 옛날에나 하던 방식”이라며 “요즘처럼 청소년 선수들의 감수성이 민감한 시대에 용납되지 않는 훈련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많은 여자 역도선수를 길러낸 이 지도자는 “신체 접촉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훈련법이 아니더라도 선수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역도부 학생들은 훈련 기간 중 합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집에 올 때마다 울면서 ‘코치님의 훈련방식이 이상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해당 사안은 같은 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회부됐다. 스포츠인권센터는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불쾌한 성적인 언어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 A코치의 폭력, 성폭력, 성희롱, 험담 혐의를 인정하며 A코치가 소속돼 있는 인천광역시역도연맹에 징계위원회 기능을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권고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인천광역시역도연맹은 12월 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연맹 측은 “그 정도 신체 접촉은 항상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폭력 및 성희롱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A코치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코치와 학생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가운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판결을 핵심 증거로 채택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음 장 계속

이에 학생들은 바로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2월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위원회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일단락 됐다’는 이유로 재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A코치의 소극적인 훈련 지도만을 의제로 다뤄 ‘견책’ 징계를 내렸다. A 코치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 기간 피해 학생들은 다른 지도자에게 훈련받다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야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 당시 위원들이 A 코치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A 코치는 인천에서 오랜 기간 지도자 생활을 해 연맹 내 공정위원들과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형식적으로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코치는 현직 인천광역시역도연맹 임원이자, 인천에서 20년 가까이 지도자 생활을 해왔다.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인천광역시역도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위원들은 2년마다 바뀌며 해당 징계 사안을 위해 임의로 공정위원들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재진은 공정위에 위원 목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위원은 “연맹이 목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며 거부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르면 체육 지도자가 소속된 기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를 통해 징계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문체부는 인천광역시역도연맹의 무혐의 조치에 대해 “그 결과가 합당한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에선 대기발령, 해외선 자격정지

한편 지난해 4월 부산시체육회 한 실업팀에서도 남성 지도자가 막대기로 여성 선수들의 신체를 접촉하며 지도하다 논란이 된 바 있다. 불편함을 호소한 여성 선수 3명이 팀을 떠났고, 부산시체육회는 해당감독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캐나다역도연맹 산하 지역 역도 팀에서 3명의 여성 선수들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남성 코치가 등과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법원은 남성 코치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지만, 역도 팀은 내부 윤리 강령(성적수치심 유발 발언)을 어겼다는 이유로 코치에게 8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손흥민 향한 인종차별, 올 시즌에만 3번째 “또? 소름이 끼친다” 인권단체 폭발

손흥민(31, 토트넘)이 또다시 인종차별 행위에 노출됐다. 이를 본 인권단체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7일(이하 한국시간) "불명예스럽게도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인종차별을 당한 것은 한 번이 아니다"라며 "축구 인권단체 '킵 잇 아웃'도 성명을 발표하며 분노했다. 그들은 현재 정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지난 6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 2022-2023시즌 프리미어리그(PL) 35라운드 맞대결에 선발 출전했다. 왼쪽 미드필더로서 피치를 부지런히 누비던 그는 후반 44분 아르나우트 단주마와 교체되며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손흥민은 팰리스 팬들이 있는 원정석 앞을 지나 걸어 나왔다. 홈 팬들은 그를 향해 기립 박수를 보냈지만, 패배를 직면한 팰리스 팬들은 그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한 몰지각한 팬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었다. 명백한 동양인 비하이자 인종차별 행위였다. 데일리 메일은 "한 팬은 눈을 옆으로 잡아당기면서 손흥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또 카메라로 그를 찍으면서 마치 관광객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올 시즌에만 벌써 세 번째 인종차별이다. 손흥민은 지난해 첼시전에서도 인종차별의 표적이 됐고, 지난 2월 웨스트햄전 이후에도 소셜 미디어에서 인종차별 메시지를 받았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스카이 스포츠' 해설가 마틴 타일러가 손흥민을 향해 "무술(Martial arts)을 한다"라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당시 눈 찌는 제스처를 취한 첼시 팬은 3년간 경기장 출입이 금지됐지만,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주기에는 모자랐던 모양이다.

토트넘과 팰리스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팰리스와 경기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경찰, 크리스탈 팰리스 구단과 협력해 수사하고 있으며 개인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고, 팰리스 역시 "경찰에 증거자료를 공유했다. 신원이 확인되면 클럽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킵 잇 아웃도 비슷한 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손흥민이 또 인종차별적 학대의 표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소름이 끼친다. 그가 이런 혐오스러운 차별을 감수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교체되는) 선수들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경기장을 떠나게 하는 정책이 그들을 인종차별에 노출될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킵 잇 아웃은 "우리는 구단과 경찰이 이번 사건에 신속히 대응한 것을 칭찬한다. 또 가해자들은 클럽 출입 금지형을 받아야 한다는 팰리스의 입장을 공유한다"라고 덧붙였다.

딸 낳고 MVP까지 딴 농구전설... 평창銀 김보름이 궁금했던 것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저출산으로 위기를 맞은 분야는 한두 개가 아니다. 스포츠계라고 예외가 아니다. 특히 선수 지원자를 못 구하는 비인기 종목의 경우 경쟁력은커녕 종목 존폐를 걱정하는 처지다.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위해 결혼한다”는 남자 선수와 달리 여자 선수의 결혼·출산 비율은 일반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중앙일보는 ‘미혼 선수’ 김보름(30·스피드스케이팅)과 ‘엄마 지도자’ 전주원(51·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코치)을 만나 여자 선수의 고충을 들어봤다. 전주원은 임신을 이유로 은퇴했다가 2년 만에 코트에 복귀해 우승하고 MVP까지 수상했다. 현재는 지도자로 활동 중인 입지전적 인물이다. 전 코치는 “2004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올림픽 진출 티켓을 딴 뒤 테스트를 해봤더니 임신이었다. 당시 33세로 미련 없이 은퇴했고, 딸을 낳은 뒤 코치를 맡았다.

선수로 복귀할 마음은 없었는데 소속팀의 설득 끝에 코트에 돌아왔고, 결국 마흔 살에 은퇴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2018년 평창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 김보름은 “전 코치님 이야기를 들으니 신기할 뿐이다. 스피드스케이팅은 체력이 중요한 종목이라 20대 중반이면 거의 그만 둔다. 그래서 내가 최고참이다. 그런데 출산하면 체력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 코치는 “산후조리를 FM(야전교범)대로 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100일간 양말도 안 벗고 스트레칭을 하니 열흘 만에 15kg이 빠졌다. 근육량이 떨어졌지만, 노하우가 있다 보니 몸이 빨리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신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보름이 “언젠가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고, 나이가 들어도 스케이트를 타고 싶은데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슬플 것 같다. 지도자로 나설 생각도 있지만, 결혼 뒤에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도자로서 10차례 우승을 차지한 전 코치는 “딸이 어릴 때 엄마가 보고 싶다면 가이드북에 나온 사진을 보고 울었다. ‘집에서 애나 봐’란 소릴 들을까 봐 두려웠다. 코트에서 더욱 열심히 한 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름 선수도 두려워하지 말고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결혼과 출산과 이후에도 열심히 활동한다면 후배들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가 스포츠계 저출산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한 선수는 “암묵적으로 ‘계약 기간에 임신은 금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런 팀이 수두룩할 것”이라고 전했다. 격렬한 종목의 한 기혼 선수는 “짚은 장기 합숙 탓에 아이가 안 생겨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직장 운동경기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출산휴가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다만 지도자와 해당팀의 양해가 불가피하다. 강원도청 소속 김보름은 “만약 나도 임신한다면 팀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아이를 원하는 선수를 배려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여자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전 코치는 “만약 선수가 출산 후 복귀 의지가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프로 스포츠는 결국 회사(모기업, 구단)의 사정이 중요한 게 현실이다. 육아 휴직을 보장하기도 쉽지 않다. 운동선수만을 위한 특혜가 있다면 일반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여성체육인 125명 중 절반 이상은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선 ‘임신 기간에 훈련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란 질문에 268명의 응답자 중 62%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인권위원회와 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스포츠개발원과 출산 이후 운동법, 복귀 과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박수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여성 선수 중 78%가 육아 문제가 해결된다면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2023 서울하프마라톤 참가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가 지난달 30일 조선일보에서 주최하는 2023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에 10여명의 직원들이 참가해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예방 등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스포츠윤리센터는 마스코트인 미오 인형탈과 QR코드가 찍힌 배너를 준비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사진 촬영 및 기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체육인들에게도 체육의 공정성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달리며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체육계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계획됐다.

이은정 이사장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바람직한 스포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스포츠 소식

동호회가 족구장 다 독점?...문체부, 공공체육시설 점검 나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5390

충북도민체육대회 D-3...영동군, 막바지 홍보에 박차

<http://news.tf.co.kr/read/national/2016370.htm>

송파구, '구민체육대회' 5월 11일 잠실실내체육관서개최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891>

경기도교육청, 아빠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운영 중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10529?ref=naver>

충북 진천군 이월 다목적체육관 준공

<http://news.tf.co.kr/read/national/2016273.htm>

제주도, 실내체육관 단계적 개선 방안 마련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9639&ref=A>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 경기도체육대회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8_0002293666&cID=14001&pID=14000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3억원 확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01000054>

IOC위원장 만난 중국 총리 "스포츠의 정치화에 반대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14200083?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